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청년 한국어·프랑스어 보조교사 교류 추진

- 4월 2일(목)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국제교육원) 4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의향서 서명
- 청년 어학 보조교사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경험과 한-불 협력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프랑스어 교육 및 한-불 교육협력 강화 기대
- 【관련 국정과제】 99-4.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4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정식 명칭 : 대한민국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공화국 교육부 및 국제교육원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

※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 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데 사용되며, 추가 협력을 위한 예비적 문서의 성격을 지님

이번 협력의향서는 지난 4월 2일(목)부터 4월 3일(금)까지 양일간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력의향서에는 우리나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 교육부·국제교육원 총 4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과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이 참석하였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Henri de Rohan-Csermak) 프랑스 국제교육원(France Éducation internationale)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르그리뜨 비켈(Marguerite Bickel) 주한프랑스대사관 담당관이 배석하였다.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양자 협의를 바탕으로 프랑스에 해당 언어의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고, 상대국에는 프랑스어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파견되는 보조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습생 혹은 직무 실습생(인턴) 처럼 정규 교사를 보조해 외국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조교사들은 수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나 학생 평가 권한은 갖지 않는다.

이번 협력의향서 서명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청년 한국어 보조교사를 파견하고, 한국에는 프랑스어 보조교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첫해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보조교사를 각 1명씩 선발하여 교류할 예정이며 점차 교류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프랑스에 보조교사로 파견되는 우리 청년들은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현지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는 한국어를 정규학교 외국어 선택과목 및 대입시험(바칼로레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69개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어가 제2외국어 과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청년 보조교사 교류가 양국 청년들의 언어·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 보조교사 파견 기간, 급여 수준, 현지 근무 예정 기관 등 상세한 정보는 추후 국립국제교육원 선발 공고(www.niied.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

하유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서명을 통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이 청년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로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협력의향서 서명식 개요
 2. 한-프랑스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의향서 개요

담당 부서 <총괄>	국제 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책임자	과장	최윤정 (044-203-6780)
		담당자	서기관	이가원 (044-203-6785)
담당 부서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	책임자	국제교류협력센터장	류경숙 (02-3668-1391)
		담당자	교육교류협력팀장	이지연 (02-3668-1505)
	주대한민국프랑스대사관	책임자	불어교육스포츠협력담당관	마르그리뜨비켈 (02-3149-4460)
		담당자	불어교육스포츠협력부담당관	김재훈 (02-3149-4461)

행사 개요

- (목적)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및 한-프랑스 교육협력 강화
 - (일시/장소) '26.4.2.(목) 15:30 ~ 16:20,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
 - (참석자)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 국립국제교육원장, 프랑스 국제교육원장, 주대한민국프랑스대사관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 한-프랑스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의향서 서명
 - 한-프랑스 교육협력 방안 논의
- ※ 한-불 유학생 교류 활성화, 프랑스 내 한국어교육 및 한국 내 프랑스어 교육 강화 등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30 ~ 15:35 (5')	• 환영 및 인사	
15:35 ~ 16:05 (30')	• 한-프랑스 교육협력 방안 논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 주한프랑스대사관
16:05 ~ 16:10 (5')	• 협력의향서 서명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16:10 ~ 16:15 (5')	• 기념촬영	
16:15 ~ 16:20 (5')	• 마무리 말씀	

□ 추진배경

- 한-불 수교 140주년 계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한국 국민 방문, 프랑스 내 한국어교육 및 한국 내 프랑스어 교육 협력 강화

□ 협력의향서(LOI) 주요 내용

- (문건명) 대한민국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공화국 교육부 및 국제교육원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

- (참여기관) ▲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프랑스: 교육부, FEI(France Education International)

※ 사업 운영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프랑스) FEI가 담당(프랑스는 현재 세계 78개국과 협력하여 매년 약 4,500명 규모로 보조교사 채용, 해외에는 약 1,500명 파견)

- (주요 내용) 양국 청년 간 언어·문화적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양국 외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어학 보조교사* 교류 실시

* ▲지위: 시간제 교생(수업 책임, 평가권 없음) ▲배치기관: (한국어 보조교사) 프랑스 중·고등학교에 배치 (프랑스어 보조교사) 한국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배치

- 시범적으로 '26~'27년 1명 선발하고 점차 확대, 구체적인 처우 등은 추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

- (의의) 한불 교육협력 강화 및 우리 청년의 프랑스 정규학교 한국어교육 참여 기회 제공

□ 향후 계획

- 상세 파견 조건 등 협의, 한국어 보조교사 선발 및 파견(~'26.하)